

“복 주시는 하나님”

월드미션대학교 신 선목 교수

기독교는 복의 종교이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마 올 한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가장 많이 주고받는 인사가 아닌가 생각한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새해를 맞이하면서 서로에게 복을 빌어주는 좋은 전통을 가지고 있다. 복이라는 것은 참 좋은 것이다. 기독교는 사실 복의 종교이다. 그럼에도 교회가 기복 종교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비판을 많이 듣는다. 물론 교회가 복음의 본질에서 벗어나 기독교인들이 마땅히 가져야 할 도덕적 책임을 다하지 않고 이기적인 복만을 구하는 왜곡된 모습을 보였기에 나오는 비판이다. 따라서 이에 대해 겸손히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기독교가 근본적으로 복의 종교임을 부인할 수는 없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복을 약속하셨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복을 얻을 것임이라”
(창12:1,2)

그 외에도 성경에 보면 복이라는 단어가 헤아릴 수 없게 많이 나온다. 기독교를 특징짓는 수 많은 단어와 표현들이 있지만 아마 복이라는 말처럼 근본적이고 핵심적인 단어는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복을 우리 신앙 생활의 부산물 정도로 생각하고 있지만 그것은 결코 아니다. 복은 우리 기독교의 본질이자 핵심이다. 기독교는 분명코 복의 종교이다.

복에 대한 잘못된 견해가 있다

그런데 기독교의 복에 대하여 두 가지 종류의 오해가 존재한다. 첫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영적인 것으로 제한하는 잘못이 그것이다. 이런 사람들은 다분히 성경적이지 않은 이원론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 즉, 영혼과 육체, 초자연적인 것과 물질 세계의 것, 이생과 내생, 교회 안과 교회 밖의 세상을 분리하여 생각한다. 그래서 하나는 하나님의 복의 영역으로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복과 상관이 없는 영역으로 간주하려는 태도이다. 오직 영혼, 초자연적인 것, 내생, 그리고 교회 안에만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고 여긴다. 이런 생각에서는 육체, 물질, 이생, 그리고 세상은 어떻게 되든지 관심이 없다. 더 나아가 이런 눈에 보이는 것들을 부인하는 것이 성숙한 신앙의 표준으로 결론 짓는다. 이런 태도에서는 오직 죽어서 천당가는 것, 교회가 성장하는 것, 초자연적인 경험을 하는 것 등만을 복으로 여길 것이다.

이와 더불어 두번째 오해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이와 반대되는 방법과 영역에서 구하는 태도이다. 즉 하나님의 축복을 물질의 축복, 이생 속에서의 출세, 세상 속에서의 영광으로 여긴다. 이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오직 이런 복들을 누리기 위한 수단으로 존재할 뿐이다. 이런 생각 속에서는 세상, 물질, 육체 속에서의 복받는 것을 신앙의 표준으로 삼는 경향이 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한다는 것 외에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과 별반 차이가 없다. 어떻게든 사업이 잘되는 것, 자녀가 잘 되는 것, 건강한 것과 같은 눈에 보이는 것들만을 복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아이러니컬 한 것은 위의 두 가지 태도가 서로 반대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함께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 세상을 부인한다고 하면서 동시에 이 세상에서 복 받는 것을 세속적인 방식으로 추구한다.